

❖ 아모스 5 장, ‘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와 구원의 길’

들어가기

본 장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와 탄식 어린 경고 그리고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첫째는 1-15 절로 북이스라엘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탄식 어린 선지자의 애가 및 권면과, 둘째로 16-27 절까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.

1.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 (1-3 절)

1)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. (1 절)

- ‘애가’ => 사람이 죽거나 민족이 멸망했을 때, 이를 애도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!
 - 곧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큰 슬픔을 갖고 애가를 만든 것!

2) 그럼 아모스 선지자가 지은 애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? (2-3 절)

①. ‘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고,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’고 노래함!

- ‘처녀 이스라엘’이란 표현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단 한번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!
- 그런데 그 ‘처녀 이스라엘’ 이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, 특별히 ‘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’ => 곧 멸망 당할 것이라고 노래한 것!!

②. ‘천 명이 행군하던 성읍엔 백 명, 백 명이 행군하던 성읍엔 열 명만 남을 것’이라고 노래함!

- 곧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며,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10 분의 1 만 남고 다 멸망 당할 것이라고 노래한 것!

- 그럼 참고로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?

- 민족과 나라의 패망을 미리 내다 보면서 그 슬픔과 애통함이 컸기 때문에..
-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..
- 우리도 가깝게는 가정과 교회, 멀게는 국가와 민족의 영적 타락과 불순종을 보면서 아모스처럼 슬픔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자!

2. 멸망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! (4-15 절)

1)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. (4 절)

- 4 절 주목-> ‘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, 너희는 나를 _____, 그리하면 _____!’

- ‘찾으라’는 말의 히/원=’다라쉬’란 말로 단순히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뜻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세워 열심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의미!
 - 곧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!
 - 호세아 선지자는 ‘여호와를 알되, 힘써 여호와를 알자’고 선포했음!!
 - 여기서 참고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?
 -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!
 -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!!
 -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!!
- 2)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! (5-9 절)
- 5 절 주목 -> ‘벰엘을 찾지 말며,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,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!...,’
 - ①. 하나님을 찾되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만 구하라는 것!
 - ②. 특별히 벰엘과 길갈은 우상숭배의 장소로 수없이 반복!! 그런데 처음으로 ‘브엘세바’가 등장!
 - ‘브엘세바’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곳!!
 - ‘브엘세바’는 ‘맹세의 우물’ 이란 뜻으로 아브라함이 ‘아비멜렉’에게 양양 일곱 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한 후 정착하여 이삭과 야곱 등 3 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한 곳!
 - ✓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으로도 ‘나아가지 말라!’ 라고 하셨다는 것!! Why?
 - a. 이곳도 이미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!
 - b. 혹시라도 과거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기에 거기 가면 도움이 될까? 라는 식의 헛된 생각도 버리고,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을 것!!
 - 6 절 => ‘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’이지만, 그렇지 않으면 불이 요셉의 집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!!
 - 요셉의 집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킨 말로 이는 북왕국 전체를 의미!
 - 7-9 절 말씀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며 범죄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심으로 찾으라고 권면!!
 -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?
 - a. 창조자 하나님!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!
 -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고,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고,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고,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분!
 - b. 그분의 이름 '여호와' =>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!!
 - c. 그는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,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시는 분!!
 - 시편 127:1 -> ‘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,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, 파수꾼의 깨어있음을 허사!’

3) 악을 미워하고,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(10-15 절)

■ 우선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부조리와 악함을 다시금 지적! (10-13 절)

- ①. ‘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,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함!’ (10 절)
 - ‘성문에서 책망하는 자’ 곧 옳은 말을 하는 장로들을 미워하며 무시함!
 - ‘정직히 말하는 자’ 곧 의인의 말을 싫어하며 악을 조장하는 사회 풍토를 지적!!
 - ②. ‘힘없는 자를 밟고,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,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함!’ (11-12 절)
 - 곧 가난하고 악하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온갖 불의가 판치던 시대!!
 - ③. ‘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’ (13 절)
 -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!
 -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한 말이 아닌 그 속에서 묵묵히 고통당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음을 의미한 것!!
- => 참고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!!

■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즉시 돌이켜 악을 미워하며 선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함!! (14-15 절)

- 14 절 주목 -> ‘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,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!’
- 여기서 ‘선을 구한다’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,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!!
- 적극적으로 선을 구할 때에만, 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!!
- 온갖 악으로 뻘뻘어진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,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고자 힘써야 함!!

3.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! (16-20 절)

1)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만백성이 슬피 울며 애통하는 날! (16-17 절)

-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,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할 것!
-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, 울음곤을 불러다가 울게 하며,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 것!
- Why? => 여호와 하나님, 곧 거룩/공의/정의의 하나님께서 저들 사이로 지나가시기 때문!!

2) ‘여호와와 날’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! (18-20 절)

■ 우선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반문! (18 절)

-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‘여호와와 날’이 되면,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하시고,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해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날로 오해!!
-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‘여호와와 날’은 그와는 정반대로 ‘어둠이요, 멸망의 날!’이었음!!

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‘여호와와 날’?

- ①. 마치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,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,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날!
 - ②. 한 줄기 불빛도 없이 어둡고 캄캄한 날!
- => 곧 이스라엘 전역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될 것!!

4.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,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,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심! (21-27 절)

- 1)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며 성회를 열고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(21-23 절)
 - 그럼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을까?

=> 그것은 저들의 실질적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,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!!
 - 그래서 24 절 주목! => ‘오직 정의를 물 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!’

=> 곧 형식적인 제사보다 먼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!
- 2) 특별히 하나님은 오래 전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,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! (25 절)

=> 곧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사보다 먼저 순종이란 사실을 기억!!
- 3)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온갖 우상들을 왕처럼 섬기며,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, 결국 저들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 잡혀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. (26-27 절)
 - 참고로 27 절의 예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에 멸망되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신 말씀!

❖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?

❖ 중보기도 제목나눔